

서남해 어획고 확 줄었다

수온상승에 해파리떼 출현...어민 울상

목포수협 위판량 작년보다 20% 감소

올해 이상기온 영향 등으로 전남 서남해 어장에서 고기가 잡히질 않아 어민들이 울상을.

8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목포에서 근해 안강망 어선 63척이 남해 서부해역에 출어해 갈치 99.5t·오징어 11.7t·병어 6.4t 등 137t을 잡았다. 이는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나, 평년대비 28% 감소한 어획량이다.

연근해로 출어한 안강망 어선은 비롯해 소형 어선들은 갈치와 병어·민어 등을 잡고 있지만, 어획부진으로 인건비도 견지 못하고 있다.

안강망 어선은 한번 출어에 최소

3000만원 어치의 고기를 잡아야 하지 만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유자망 어선 금어기 막 풀렸지만, 맹독성 해파리떼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던질 곳이 없어 됐다"고 하소연했다.

목포수협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위판량은 721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34t에 비해 1000t 이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잡아 온 고기도 상품성이 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갈치의 경우 척당 슬만한 것은 2상자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료용으로나 쓸 정도로 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서 상품 갈치 한 마리가 3만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1만원 까지 올랐다. 이러한 전남 서남해역 어획부진은 수온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남해 연안정지 관측수온은 17.7~25.7도로 전년에 비해 0.8~3.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망 어선 선주 겸 선장인 김모 씨는 "씨가 말랐는지 바다에 고기가 없어 빙그레처럼 하고 있고, 맹독성 해파리떼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던질 곳이 없어 됐다"고 말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이상 기온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 황토고구마 인기 짱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남 대표 특산물인 황토고구마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화산면 고구마 재배농민들이 햇고구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해남군 역은 올해 1000여 고구마 재배농가가 1900여ha에서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10일~13일 수위 5.11m까지 상승

목포시 해수 피해 주의보

목포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만조시 5.11m까지 상승함에 따라 해수 침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8일 밝혔다.

목포시는 특별 비상 근무반을 편성

하고 조위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배수문·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에 들어갔다.

또 해안 저지대를 대상으로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차량주차 금지 등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jwcho@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닷물 수위가 만조시 5.11m까지 상승함에 따라 침수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는 차량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매년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해수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총기자 lyc@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0평, 150평, 100평 매물(다량보유)

매도: 북광주 나들목 첨단지구 인근 일본주거지역 약 2,000평

4차로접(물류센터, 공장) 적합 평당 100만원

매도: 장성삼사면 계획관리지역 2,300평(공장, 물류센터,

창고) 적합 4차선 도로접 제곱미터당 45.374원

매도: 첨단지구 인근 진원 산동리 임야 5,000평 3,000평

평당 10만원(아산), 근린벨트(농원, 농장) 적합

매도: 주유소 및 물류 센터 부지 약 1900평 건물 110평

매매가 24억원 주유소(현재성업중)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공장 매매, 임대

전문 공장매매, 임대, 다수 모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이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 011-827-0876

(첨단 세종로 건너 쌈동이 빌딩 1층)

신안 섬드리합창단 텔런트 사미자씨와 함께 섬 순회공연

17~19일 3개섬



위한 공연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처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첫 무대에 오르는 듯 설렙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섬마을 순회공연에는 연극배우 공호석·조승현씨도 특별 출연하며, 미술사 학장군씨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섬드리 합창단은 지난 2002년 열린 광주 KBS 섬어린이 동요대회 입상자들의 모임에서 출발, 지난 2003년 8월 공식 출범했으며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우표로 만나는 신기한 공룡세계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17~19일 전시회

"신기한 공룡세계, 우표로 만나세요."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오는 17~29일 박물관 전시실에서 세계 공룡우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우표 전시회는 해남 우체국 회원인 엄원용씨(한국우취연합 회장)와 김총수씨 해남군 세무회계과장의 소장품 75 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각종 공룡을 주

제로 한 희귀 우표를 비롯해 나라별 공룡 우표·공룡 그림엽서·전화카드 등을 선보여 방학을 맞은 학생 등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 동안 ▲우표 문화교실 ▲공룡 우표 그리기 ▲공룡찾기 퀴즈응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리며 매일 개장 첫 관람객에게는 우표 기념품도 증정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경운기 4000여대 야광판 무상 부착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지부장 김태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운기 교통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야광판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함평군지부는 관내 지역농협의 협조를 얻어 지역내 경운기 4000여대를 대상으로 야광판을 무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함평군지부는 최근 함평군 손불농협에서 안병호 함평군수·양규모 군의회 의장·김치중 함평경찰서장 및 관내 지역조합장·지도담당직원·경



운기 보유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기 야광판 부착사업 시연회를 가졌다.(사진)

김태남 지부장은 "이번 야광판 부착을 통해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경기자 hwang@

섬 중학생 50명 대상

신안문화원 예절교실

신안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2주3일간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예절교실에는 비금·증도·안락·자·자·자 등 지역 남녀 중학생 50여명이 참가했다.

신안문화원은 다도예절·가훈짓기·전통연 만들기·전통훈례·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전통사상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친구관계향상 프로그램과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방안 등 올바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jwcho@

친환경쌀 원료 1년 이상 숙성

프리미엄급 진도홍주 나온다

'카르진' 11월초 출시

진도군이 지역특산물인 '진도홍주'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원료와 숙성기간·포장재 등 고급 '진도홍주' 규격기준을 만들고 오는 10월말~11월초 새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쌀을 원료로 사용하고, 1년이상 숙성된 원액을 이용하는 등의 규격기준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 관내 5개 진도홍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새 고급 진도홍주 브랜드명은 '카르진'(Carjin)으로 정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카리스마'(charisma)와 진도를 합한 것

으로 '힘이 있고 느낌 있는 진도의 술'을 의미한다. 기존 진도홍주 공동브랜드인 '루비콘'(<사진>)은 그대로 사용된다.

진도홍주 신활력사업소의 연구 결과 진도홍주를 장기간 숙성할 경우 메탄을 함량이 낮아져 숙취가 줄고 알코올의 거친 느낌이 감소해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90일 숙성한 진도홍주의 메탄을 함량은 mL당 0.23mg이었으나 1년 숙성 시 0.079mg으로 줄었다.

이번 고급형 출시는 이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숙성에 따른 홍주의 메탄을 및 향기성분 규격기준을 확립, 새로운 시장창출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원료와 숙성기간 등을 명시한 진도홍주 군수품 질심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유리병 디자인 금형을 만드는 등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 투자용)

-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월세 12억
- 토지 164평 건물 588평 (매가32억) 보증금 50억 / 월세 4,000만원